

あい あお うえ おい 모음과 단어 첫 일본어 강좌



서울대교구 시흥4동 성당 노년분과 산하단체 행복 시니어 아카데미 주관으로 2019년 1월 5일(토) 오후 5시 교육관 그리스도왕 홀에서 56명이 참석한 가운데 일본어 강좌가 개강했다. 이 날 강의는 주임신부님의 격려사와 신성철(세난) 학장의 일정계획 안내로 시작되었다.

첫 개강 격려차 참석한 주임신부님께서는 '일본어를 배우려는 열의가 놀랍다. 100만원의 금전적 가치로 열심히 배워 일본여행을 가서 현지인과 언어소통을 해봅시다.' 라고 말씀하셨고, 신 학장은 '오늘 강의를 신청한 60명 중 60세 이상이 75%로 시니어교육이라 할만 하다. 2월까지의 유인물로 모음과 단어 연습을 하고 3월부터는 교재를 가지고 2개 반으로 나누어 매주 토요일 오후 5시부터 5시40분까지 방학 없이 수업을 진행할 것입니다.' 라고 했다.

기쁜 메시아 탄생 장식물이 다가올 대림절 기약하면서

본당은 1월13일(주일) 주님의 세례축일 맞이하여 각분과 소속 산하단체에서 성탄꾸미기 성물과 조형물을 꾸미기 한 분과단체들이 철거했다.

성전 제대 앞 마구간과 성물은 전례, 기획홍보분과. 성전 외부 벽과 소나무는 교육선교, 생명분과 소속 단체인 울뜨레아와 한뜻 두레회. 성전 유아방과 성가대 주위는 전례분과 해설독서단과 성가대. 성전 내 제의실 입구와 독서대 옆 트리는 청소년분과. 교육관 입구는 12구역과 노년분과 행복시니어 아카데미. 여성구역장분과는 여성구역장 판매 컨테이너. 성모상은 신심 생활분과 산하단체인 성모승천 꾸리아. 시설분과 단체의 본당 사랑회는 정문 소나무로 모든 단체가 대림 2주일부터 약 1개월간의 꾸미기 단장전시를 마치며 다가올 대림절을 기약했다.



신년 인사와 연중 운영 계획 발표 주임신부님 함께 격려 저녁식사 하다



청소년분과 소속 청년연합회는 1월13일(주일) 오후 7시에 교육관 2층 안드레아방(202호)에서 회원 21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9년 1월 월례회의를 진행했다. 안성근 마리노 회장의 주관아래 시작기도에 이어 신년 인사를 나누고 회원 상호간 자기소개와 2019년도 운영계획으로 1부를 마쳤다. 2부로 주임신부님께서 청년연합회의 격려하기 위한 저녁식사가 준비됐다.

운영계획으로 5월 청년 나들이, 9월 청년연합회 캠프, 12월 성탄행사 계획과 2월~4월, 6월, 8월, 11월은 자체교리교육을 발표했다.